

ETHER LIBRARY

0017

손자병법

孫子兵法

손무

Sun Wu · c. 5th c. BC

철학 · 종교

손자병법

孫子兵法

손무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孫子兵法 (손자병법)

지은이 손무(孫武,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 춘추 시대 오나라의 장수)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기원전 5세기 무렵. 제나라 사람 손무가 오나라 왕 합려를 섬기며 남긴 병법이라고 『사기』가 전한다. 「손자(孫子)」는 그를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지금 전하는 열세 편의 꼴은 3세기 초 조조(曹操)가 주를 단 뒤로 굳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춘추 시대 오나라의 장수 손무(孫武)가 남겼다고 전하는 병법서 『손자병법(孫子兵法)』 열세 편을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쳐 옮긴 중역이 아닙니다. 저본은 지금 널리 통행하는 한문 열세 편 본문의 전자 텍스트입니다. 라이오넬 자일스(Lionel Giles)가 청나라 손성연(孫星衍)의 교감본을 옮긴 영어 번역(1910)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고, 자일스가 붙인 해설과 주석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번역이 한문과 다르게 읽은 자리에서는 한문을 따랐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간체자를 번체자로 되돌리며 생긴 오자(「復」을 「複」으로, 「里」를 「裏」로, 「谷」을 「穀」으로 적은 것 따위)와 몇 군데 오식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통행본에 따라 바로잡아 옮겼습니다. 바로잡은 글자가 뜻을 크게 바꾸는 자리(제8편·제11편의 「 거친 땅 」 , 제10편의 「느슨해짐」, 제11편의 아홉 땅 두 번째 목록, 제12편의 「닦다」, 제13편의 「향간」)는 각주에 밝혔습니다. 문단은 저본의 나눔을 따랐습니다. 다만 저본이 편 전체를 한 문단으로 묶어 둔 제7편부터 제13편까지는 통행본의 단락을 참고해 내용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편 이름

편 이름은 우리 독자에게 익은 한자음으로 적고 한자를 곁들였습니다.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시계(始計): 싸우기 전에 셈하기

제2편 작전(作戰): 싸움을 일으키는 데 드는 것

제3편 모공(謀攻): 계책으로 치기

제4편 군형(軍形): 군대의 형

제5편 병세(兵勢): 군대의 세

제6편 허실(虛實): 빈 곳과 찬 곳

제7편 군쟁(軍爭):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

제8편 구변(九變): 아홉 가지 변화

제9편 행군(行軍): 군대를 움직이고 머물게 하기

제10편 지형(地形): 땅의 생김새

제11편 구지(九地): 아홉 가지 땅

제12편 화공(火攻): 불로 치기

제13편 용간(用間): 간첩 쓰기

문체

손자는 짧게 단언하고 명령합니다. 번역도 원리를 말하는 문장은 하다체로, 「~하지 말라」처럼 금하고 명하는 문장은 하라체로 옮겼습니다. 편마다 첫머리의 「孫子曰」은 「손자가 말했다.」로 옮겼고, 그 뒤는 모두 손자의 말입니다. 한문의 대구와 되풀이는 우리말에서도 같은 틀로 되풀이했습니다.

낱말

손자가 일부러 세운 말은 책 전체에서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세(勢)는 **세**(풀어 말할 때는 기세), 형(形)은 **형**(겉으로 드러난 태세), 허실(虛實)은 **빈 곳과 찬 곳**, 기정(奇正)은 **변칙과 정공**, 궤도(詭道)는 **속임수의 길**입니다. 도(道)는 다섯 가지 일의 첫째일 때 **도**이고, 방법이나 길을 말할 때는 **길**로 옮겼습니다.

「兵」은 한 글자로 전쟁, 군대, 병사, 무기를 두루 가리킵니다. 자리마다 뜻에 맞는 말로 옮겼습니다.

제8편과 제11편의 아홉 가지 땅, 제10편의 여섯 가지 지형은 「흩어지는 땅」「네거리 땅」「죽을 땅」처럼 우리말 이름으로 옮기고, 편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한자를 곁들였습니다. 제13편의 다섯 간첩은 원문이 바로 뒤에서 풀어 주므로 향간·내간·반간·사간·생간이라는 한자음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람과 나라의 이름은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표기 원칙에 따라 한자음으로 적고 처음 나오는 자리에 한자를 곁들였습니다. 전설 속 임금 「황제(黃帝)」는 천자를 뜻하는 황제(皇帝)와 헷갈리지 않도록 늘 한자를 곁들였습니다.

리(里), 종(鍾), 석(石), 일(鎰), 수(銖) 같은 옛 단위는 오늘의 단위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오는 자리의 각주에 대략의 크기를 적었습니다.

제4편에서 병법의 차례로 꼽는 네 가지(度·量·數·稱)는 「재기·되기·세기·달기」로 옮기고 처음 나오는 자리에 한자를 곁들였습니다. 땅을 재고, 물자를 되고, 병력을 세고, 힘을 저울에 단다는 뜻입니다.

수는 「십만」「천 리」「천금」처럼 우리말 수사로 적었습니다.

각주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모두 40개). 사람과 나라, 옛 제도와 단위, 책 이름처럼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것에만 짧게 달았고, 같은 말에는 책에서 처음 나오는 자리에 한 번만 달았습니다.

손자의 뜻을 풀이한 옛 주석가들(조조, 두목, 매요신 등)과 자일스의 해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읽기가 크게 갈리는 몇 자리만 각주에 다른 읽기를 한 줄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제1편 시계(始計) 8

제2편 작전(作戰) 10

제3편 모공(謀攻) 12

제4편 군형(軍形) 15

제5편 병세(兵勢) 17

제6편 허실(虛實) 19

제7편 군쟁(軍爭) 22

제8편 구변(九變) 25

제9편 행군(行軍) 27

제10편 지형(地形) 30

제11편 구지(九地) 33

제12편 화공(火攻) 38

제13편 용간(用間) 40

제1편 시계(始計)

손자(孫子)[1]가 말했다.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자리이고 살아남느냐 망하느냐가 갈리는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다섯 가지 일(五事)로 헤아리고 셈(計)으로 견주어 그 실정을 캐낸다. 첫째는 도(道), 둘째는 하늘, 셋째는 땅, 넷째는 장수, 다섯째는 법이다.

도란 백성이 윗사람과 뜻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백성은 윗사람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어 위태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이란 밤과 낮(陰陽), 추위와 더위, 철의 바뀜이다. 땅이란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넓고 좁음, 죽을 자리와 살 자리다. 장수란 지혜, 믿음, 어짊, 용기, 엄격함이다. 법이란 부대의 편제(曲制), 군관의 직분(官道), 군수의 쓰임(主用)이다[2]. 이 다섯 가지는 장수라면 누구나 들어 보았지만, 제대로 아는 자는 이기고 알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셈으로 견주어 실정을 캐낼 때는 이렇게 묻는다. 어느 쪽 군주가 도를 갖추었는가? 어느 쪽 장수가 유능한가? 어느 쪽이 하늘과 땅을 얻었는가? 어느 쪽 법령이 잘 시행되는가? 어느 쪽 병력이 강한가? 어느 쪽 병사가 잘 훈련되었는가? 어느 쪽 상과 벌이 분명한가? 나는 이것으로 이기고 질 것을 안다.

장수가 내 계획을 따르면 그를 써서 반드시 이길 것이니 남겨 두고, 장수가 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를 써서 반드시 질 것이니 내보낸다[3].

계획이 이롭다 하여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세(勢)를 만들어 바깥에서 거든다. 세란 이로움에 따라 저울질해 형편을 휘어잡는 것이다.

전쟁은 속임수의 길(詭道)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서 못 하는 듯 보이고, 군사를 쓰려 하면서 쓰지 않을 듯 보이며,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듯 보이고,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듯 보인다. 적이 이익을 탐하면 미끼로 꾀어내고, 어지러우면 쳐서 빼앗고, 힘이 꽉 차 있으면 대비하고, 강하면 피하고, 성나 있으면 들쑤시고, 몸을 낮추면 우쭐하게 만들고, 편안하면 지치게 하고, 서로 친하면 갈라놓는다. 대비하지 않은 곳을 치고,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병법가가 이기는 수이니, 미리 전할 수는 없다.

싸우기 전 묘당의 셈(廟算)[4]에서 이기는 쪽은 이길 셈을 많이 얻은 쪽이고, 싸우기 전 묘당의 셈에서 이기지 못하는 쪽은 이길 셈을 적게 얻은 쪽이다. 셈이 많으면 이기고 셈이 적으면 이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셈이 없는 쪽이야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이것으로 살펴보면 이기고 질 것이 드러난다.

---

1. 손무(孫武)를 높여 부르는 말. 제나라 사람으로 오나라 왕 합려(闔閭)의 장수가 되었다고 『사기』가 전한다.

2. 곡제(曲制)는 군대를 크고 작은 부대로 나누고 깃발과 징·북으로 다스리는 제도, 관도(官道)는 군관의 등급과 맡은 일, 주용(主用)은 군수품과 비용을 맡아 대는 일로 흔히 푼다.

3. 將을 「장차」로 읽어 「임금이 내 계획을 들어주면 나는 남고,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손자 자신의 거취를 밝힌 말로 보는 설도 있다.

4. 묘당은 조상을 모신 나라의 사당으로, 나라의 큰일을 이곳에서 의논했다. 묘당의 셈은 군대를 내기 전에 이곳에서 양쪽의 승산을 헤아리던 일이다.

제2편 작전(作戰)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법은 이렇다. 날랜 전차 천 대, 가죽 덮은 수레 천 대[1], 갑옷 입은 병사 십만을 갖추고 천 리[2] 밖까지 군량을 실어 나른다. 그러면 나라 안팎에서 드는 비용, 빈객을 대접하는 씀씀이, 아교와 옻 같은 재료, 수레와 갑옷을 대는 데까지 하루에 천금[3]이 든다. 그런 뒤에야 십만 대군이 일어선다.

싸움을 벌이면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오래 끌면 무기가 무뎌지고 날카로운 기세가 꺾이며, 성을 치면 힘이 다하고, 군대를 오래 들판에 세워 두면 나라 살림이 모자란다. 무기가 무뎌지고 날카로운 기세가 꺾이며 힘이 다하고 재물이 바닥나면, 제후[4]들이 그 지친 틈을 타고 일어나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뒷일을 잘 수습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은 서툴러도 빨리 끝낸다는 말은 들었어도, 솜씨 좋게 오래 끈다는 말은 보지 못했다. 전쟁을 오래 끌어 나라가 이로웠던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군사를 부리는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사를 부리는 이로움도 다 알 수 없다.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병사를 두 번 뽑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실어 나르지 않는다. 쓸 물자는 나라에서 가져가되 군량은 적에게서 얻으니, 군대가 먹을 것이 넉넉하다. 나라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은 멀리 실어 나르기 때문이니, 멀리 실어 나르면 백성이 가난해진다. 군대 가까운 곳에서는 물건값이 치솟고, 물건값이 치솟으면 백성의 재물이 바닥나며, 재물이 바닥나면 마을마다 매기는 부역(丘役)[5]에 쫓기게 된다.

힘이 다하고 재물이 바닥나면 나라 안 집집마다 살림이 텅 비어, 백성의 재산은 열에 일곱을 잃는다. 나라에서 쓰는 재물도 부서진 수레와 지친 말, 갑옷과 투구, 화살과 쇠뇌, 갈래창과 방패, 창과 큰 방패, 부역으로 끌어온 소와 큰 수레에 들어가 열에 여섯을 잃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는 적에게서 먹으려고 힘쓴다. 적의 곡식 한 종을 먹는 것은 우리 곡식 스무 종에 맞먹고, 적의 콩대와 짚 한 석은 우리 것 스무 석에 맞먹는다[6]. 적을 죽이는 것은 분노에서 나오고, 적의 이익을 빼앗는 것은 재물을 바라서다. 그러므로 전차로 싸워 적의 수레를 열 대 이상 얻으면 맨 먼저 얻은 병사에게 상을 주고, 그 수레의 깃발을 우리 깃발로 바꾸어 단다. 빼앗은 수레는 우리 수레에 섞어 타고, 사로잡은 병사는 잘 대우해 기른다. 이것을 적을 이기면서 더 강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전쟁을 아는 장수는 백성의 목숨을 쥔 사람(司命)[7]이며, 나라가 편안하냐 위태로우냐를 가름하는 주인이다.

---

1. 날랜 전차는 말 네 필이 끄는 싸움 수레로, 한 대를 사(駟)라 센다. 가죽 덮은 수레는 군수품을 싣는 짐수레로, 한 대를 승(乘)이라 센다.

2. 거리 단위. 당시 1리는 400미터 남짓이었다.

3. 막대한 돈을 이르는 말이다.

4. 주나라 왕에게서 땅을 받아 저마다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들. 손자의 시대에는 서로 다투는 독립된 나라나 다름없었다.

5. 구역(丘役)은 구(丘)라는 마을 단위로 매기던 부역이다.

6. 종과 석은 곡식이나 마초를 되는 단위다. 한 종은 여섯 석 남짓이었다.

7. 사명(司命)은 사람의 목숨을 맡는다는 별, 또는 그 별의 신이다.

제3편 모공(謀攻)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법은 이렇다. 나라를 온전히 둔 채 이기는 것이 으뜸이고 나라를 깨뜨려 이기는 것은 그다음이다. 군(軍)[1]을 온전히 둔 채 이기는 것이 으뜸이고 군을 깨뜨려 이기는 것은 그다음이다. 여(旅)를 온전히 둔 채 이기는 것이 으뜸이고 여를 깨뜨려 이기는 것은 그다음이다. 졸(卒)을 온전히 둔 채 이기는 것이 으뜸이고 졸을 깨뜨려 이기는 것은 그다음이다. 오(伍)를 온전히 둔 채 이기는 것이 으뜸이고 오를 깨뜨려 이기는 것은 그다음이다. 그러므로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잘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잘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다.

가장 좋은 용병은 적의 계책(謀)을 치는 것이고, 그다음은 적이 맺은 동맹을 치는 것이고, 그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며, 가장 못한 것은 성을 치는 것이다. 성을 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나 하는 일이니, 큰 방패와 성을 치는 수레를 손보고 기계를 갖추는 데 석 달이 걸리고, 성벽 앞에 흙산을 쌓는 데 또 석 달이 걸린다[2]. 장수가 분을 이기지 못해 병사들을 개미 떼처럼 성벽에 달라붙게 하면, 병사 삼 분의 일을 죽이고도 성을 빼앗지 못한다. 이것이 성을 치다가 당하는 재앙이다.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고, 적의 성을 빼앗되 치지 않으며, 적의 나라를 무너뜨리되 오래 끌지 않는다. 반드시 온전한 채로 천하를 다투니, 군대가 무뎌지지 않고도 이로움을 온전히 얻는다. 이것이 계책으로 치는 법이다.

군사를 부리는 법은 이렇다. 열 배면 에워싸고, 다섯 배면 치고, 두 배면 나누고, 엇비슷하면 능히 맞서 싸우고, 적으면 능히 빠져나가고, 상대가 안 되면 능히 피한다. 그러므로 작은 군대가 굳게 버티기만 하면 큰 군대에게 사로잡힌다.

장수는 나라의 버팀목이다. 버팀목이 빈틈없이 맞물리면 나라가 반드시 강해지고, 틈이 벌어지면 나라가 반드시 약해진다. 임금이 군대에 걱정을 끼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군대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줄 모르고 나아가라 하고 군대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 줄 모르고 물러나라 하는 것, 이것을 군대를 얽어맨다고 한다. 삼군(三軍)[3]의 일을 모르면서 삼군의 다스림에 끼어들면 병사들이 헷갈리고, 삼군의 임기응변을 모르면서 삼군의 임무에 끼어들면 병사들이 의심한다. 삼군이 헷갈리고 또 의심하면 제후들이 일으키는 환난이 닥친다. 이것을 군대를 어지럽혀 적에게 승리를 넘겨준다고 한다.

이길 것을 아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다. 싸워도 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쪽이 이긴다. 병력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쓰는 법을 아는 쪽이 이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는 쪽이 이긴다. 대비를 갖추고 대비하지 않은 적을 기다리는 쪽이 이긴다. 장수가 유능하고 임금이 간섭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이 다섯 가지가 이길 것을 아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진다.

---

1. 군(軍)·여(旅)·졸(卒)·오(伍)는 군대를 묶는 단위로, 군은 1만 2,500명, 여는 500명, 졸은 100명, 오는 5명이다.

2. 큰 방패는 바퀴를 달아 밀고 다니던 방패, 성을 치는 수레는 생가죽을 덮어 그 아래에 병사를 태우고 성벽까지 밀고 가던 수레다. 흙산은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아 성 안을 내려다보며 치던 것이다.

3. 나라의 군대 전체를 이르는 말. 큰 나라는 군대를 세 군으로 나누어 두었다.

제4편 군형(軍形)

손자가 말했다. 옛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해 놓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게 될 때를 기다렸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렸으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할 수는 있어도 적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승리는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이길 수 없으면 지키고, 이길 수 있으면 친다. 지키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이고, 치는 것은 힘이 남아서다. 지키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홉 겹 땅 밑에 숨고, 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홉 겹 하늘 위에서 움직이니, 스스로를 지키면서 온전히 이길 수 있다.

승리를 내다보는 눈이 뭇사람이 아는 데를 넘지 못하면 잘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아니고, 싸워 이겨서 천하가 잘했다고 일컬어도 잘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아니다. 가을 털[1]을 든다고 힘이 세다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본다고 눈이 밝다 하지 않으며, 천둥소리를 듣는다고 귀가 밝다 하지 않는다. 옛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기 쉬운 적을 이겼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승리에는 지혜롭다는 이름도 없고 용감하다는 공도 없으며, 싸워 이기는 데 어긋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손을 쓰는 곳마다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니, 이미 진 적을 이기기 때문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지지 않을 자리에 먼저 서고, 적이 질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은 뒤에 싸움을 구하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기를 구한다.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도를 닦고 법을 지키기에 이기고 지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병법에는 첫째 재기(度), 둘째 되기(量), 셋째 세기(數), 넷째 달기(稱), 다섯째 이기기가 있다. 땅이 재기를 낳고, 재기가 되기를 낳고, 되기가 세기를 낳고, 세기가 달기를 낳고, 달기가 이기기를 낳는다[2]. 그래서 이기는 군대는 일(鎰)로 수(銖)를 다는 것과 같고, 지는 군대는 수로 일을 다는 것과 같다[3]. 이기는 쪽이 싸우는 것은 가두어 둔 물을 천 길 골짜기로 터뜨려 쏟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형(形)이다.

---

1. 가을에 새로 돋는 짐승의 가는 털. 아주 가볍고 작은 것을 이른다.

2. 재기(度)는 땅의 넓이를 자로 재는 것, 되기(量)는 거기서 거둘 물자의 양을 말과 되로 되는 것, 세기(數)는 그 물자로 먹일 병력의 수를 세는 것, 달기(稱)는 그 수로 양쪽의 힘을 저울에 다는 것이다. 땅에서 시작해 이 넷을 차례로 거치면 이기고 질 것이 나온다는 사슬로 흔히 읽는다.

3. 일과 수는 무게 단위로, 1일은 수의 오백 배쯤 된다.

제5편 병세(兵勢)

손자가 말했다. 무릇 많은 병력을 다스리면서 적은 병력을 다스리듯 할 수 있는 것, 부대를 나누고 사람 수를 정하는 편제(分數)가 그것이고, 많은 병력을 싸우게 하면서 적은 병력을 싸우게 하듯 할 수 있는 것, 깃발과 북(形名)[1]이 그것이다. 삼군의 무리가 적을 맞받으면서도 반드시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기정(奇正)이 그것이고, 군대가 들이치는 곳마다 숫돌을 달걀에 내던지듯 하는 것, 허실(虛實)이 그것이다.

무릇 싸움은 정공(正)으로 맞붙고 변칙(奇)으로 이긴다. 그러므로 변칙을 잘 내는 사람은 천지처럼 다함이 없고 강과 바다처럼 마르지 않는다.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니 해와 달이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네 계절이 그렇다. 소리는 다섯 가지를 넘지 않지만 다섯 소리가 어울려 내는 변화는 다 들을 수 없다. 빛깔은 다섯 가지를 넘지 않지만 다섯 빛깔이 어울려 내는 변화는 다 볼 수 없다. 맛은 다섯 가지를 넘지 않지만 다섯 맛이 어울려 내는 변화는 다 맛볼 수 없다[2]. 싸움의 세(勢)도 변칙과 정공 두 가지를 넘지 않지만, 변칙과 정공이 어울려 내는 변화는 끝까지 다 헤아릴 수 없다. 변칙과 정공은 서로를 낳아 고리처럼 돌고 돌아 끝이 없으니, 누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세찬 물이 빨라서 돌까지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것이 세이다. 사나운 새가 빨라서 먹이를 부수고 꺾는 것, 그것이 절(節)이다. 이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세는 거세고 절은 짧다. 세는 시위를 당긴 쇠뇌와 같고, 절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어수선하게 뒤엉켜 싸움이 어지러워 보여도 어지럽힐 수 없고, 뒤죽박죽 흐릿해 보여도 진의 꼴이 둥글어 깨뜨릴 수 없다.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나오고, 겁은 용기에서 나오고, 약함은 강함에서 나온다.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워지느냐는 편제의 문제이고, 용감하냐 겁내느냐는 세의 문제이며, 강하냐 약하냐는 형(形)의 문제다. 그러므로 적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 적이 반드시 따라오고, 무언가를 내주면 적이 반드시 집어 간다. 이익으로 적을 움직이고, 병사를 갖추어 기다린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기를 세에서 구하고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골라 세에 맡길 수 있다. 세에 맡기는 사람이 병사를 싸우게 하는 것은 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 나무와 돌은 본디 평평한 데 놓으면 가만히 있고 비탈에 놓으면 움직이며, 모나면 멈추고 둥글면 굴러간다. 그러므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병사를 싸우게 하는 세는 천 길 산 위에서 둥근 돌을 굴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세이다.

---

1. 형(形)은 눈으로 보는 신호인 깃발, 명(名)은 귀로 듣는 신호인 징과 북을 가리킨다.

2. 다섯 소리는 궁·상·각·치·우, 다섯 빛깔은 푸른빛·붉은빛·누른빛·흰빛·검은빛, 다섯 맛은 신맛·쓴맛·단맛·매운맛·짠맛이다.

제6편 허실(虛實)

손자가 말했다. 무릇 싸울 땅에 먼저 가 있으면서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싸울 땅에 늦게 가서 싸움에 달려드는 자는 지친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적을 끌어오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적이 스스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을 보여 주기 때문이고, 적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로움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이 편안하면 지치게 할 수 있고, 배부르면 굶주리게 할 수 있고, 자리 잡고 있으면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적이 반드시 달려올 곳으로 나아가고, 적이 생각지 못한 곳으로 달려간다. 천 리를 가도 지치지 않는 것은 적이 없는 땅으로 가기 때문이다. 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치기 때문이고, 지키면 반드시 굳건한 것은 적이 치지 않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은 어디를 지켜야 할지 모르고, 지키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은 어디를 쳐야 할지 모른다. 미묘하고 미묘하구나, 형체조차 없는 데 이른다. 신묘하고 신묘하구나, 소리조차 없는 데 이른다. 그래서 적의 목숨을 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아가는데 막을 수 없는 것은 적의 빈 곳(虛)을 찌르기 때문이고, 물러나는데 뒤쫓을 수 없는 것은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적이 보루를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 두었더라도 우리와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적이 반드시 구하러 나와야 할 곳을 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으면 땅에 금만 그어 놓고

지켜도 적이 우리와 싸울 수 없으니, 적이 가려는 곳을 엇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로 뭉치고 적은 나뉜다. 우리는 뭉쳐 하나가 되고 적은 나뉘어 열이 되면, 열로 그 하나를 치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 수는 많고 적의 수는 적으니, 많은 수로 적은 수를 칠 수 있으면 우리가 맞붙어 싸울 상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려는 땅을 적이 알 수 없어야 한다. 알 수 없으면 적이 대비할 곳이 많아지고, 적이 대비할 곳이 많아지면 우리가 맞붙어 싸울 상대는 적어진다. 앞을 대비하면 뒤가 엷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엷어지고, 왼쪽을 대비하면 오른쪽이 엷어지고, 오른쪽을 대비하면 왼쪽이 엷어진다.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엷지 않은 곳이 없다. 수가 적은 쪽은 남을 대비하는 쪽이고, 수가 많은 쪽은 남이 자기를 대비하게 만드는 쪽이다. 싸울 땅을 알고 싸울 날을 알면 천 리 밖에서도 모여 싸울 수 있다. 싸울 땅을 모르고 싸울 날을 모르면 왼쪽이 오른쪽을 구하지 못하고, 오른쪽이 왼쪽을 구하지 못하며, 앞이 뒤를 구하지 못하고, 뒤가 앞을 구하지 못한다. 하물며 멀게는 수십 리, 가깝게는 몇 리 떨어져 있는 데야! 내가 헤아리기로는, 월(越)나라[1] 사람의 군대가 많다 한들 이기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승리는 만들 수 있다. 적이 많더라도 싸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적을 따져 보아 얻고 잃을 셈을 알고, 적을 엿보아 움직이고 멈추는 이치를 알고, 적이 모습을 드러내게 해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고, 적과 맞겨루어 보아 넉넉한 곳과 모자란 곳을 안다. 군대의 형(形)을 짓는 솜씨가 지극해지면 형이 없는 데 이른다. 형이 없으면 깊이 숨어든 간첩도 엿볼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계책을 세울 수 없다. 적의 형에 따라 뭇사람 앞에 승리를 거두어 놓아도 뭇사람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이긴 형은 알아도, 우리가 승리를 지어낸 형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싸워 이긴

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끝없이 바뀌는 형에 맞추어 응한다. 군대의 모습은 물과 같다. 물의 흐름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달려가고, 군대의 모습은 찬 곳(實)을 피해 빈 곳을 친다. 물은 땅에 따라 흐름을 정하고, 군대는 적에 따라 승리를 정한다. 그러므로 군대에는 늘 같은 세(勢)가 없고, 물에는 늘 같은 꼴이 없다. 적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을 신묘하다고 한다. 오행은 늘 이기는 것이 없고, 네 계절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해는 짧아졌다 길어지고, 달은 이울었다가 다시 찬다.

---

1. 오나라와 원수로 지내던 남쪽 이웃 나라. 손자는 오나라를 섬겼다.

제7편 군쟁(軍爭)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법은,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을 받아 군대를 모으고 병력을 끌어모은 뒤 적과 마주해 진을 치기까지,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軍爭)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이 어려운 것은 돌아가는 길을 곧은 길로 삼고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을 돌아가면서도 이익으로 적을 꾀어, 적보다 늦게 떠나고도 적보다 먼저 이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길과 곧은 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은 이로움이 되기도 하고 위태로움이 되기도 한다. 군대를 통째로 이끌고 이로움을 다투면 제때 이르지 못하고, 군대를 버려두고 이로움을 다투면 치중(輜重)[1]을 잃는다. 그러므로 갑옷을 말아 메고 달려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길을 곱절로 서둘러 백 리 밖에서 이로움을 다투면, 삼군의 장수들이 사로잡힌다. 굳센 병사는 앞서고 지친 병사는 뒤처져 대개 열에 하나만 이르기 때문이다[2]. 오십 리 밖에서 이로움을 다투면 상장군이 꺾이니, 대개 절반만 이르기 때문이다. 삼십 리 밖에서 이로움을 다투면 삼 분의 이만 이른다. 이 때문에 군대는 치중이 없으면 망하고, 군량이 없으면 망하고, 쌓아 둔 물자가 없으면 망한다.

제후들의 속셈을 모르면 미리 손잡을 수 없고, 산과 숲, 험하고 막힌 곳, 늪과 못의 생김새를 모르면 군대를 나아가게 할 수 없고,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땅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 전쟁은 속임수로 서고, 이로움을 따라 움직이며,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으로 변화를 삼는다.

그러므로 빠를 때는 바람 같고, 느릴 때는 숲 같고, 쳐들어가 빼앗을 때는 불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 같고, 헤아리기 어렵기는 어둠 같고, 움직일 때는 우레 같다. 마을을 털 때는 무리를 나누고, 땅을 넓힐 때는 이로움을 나누며, 저울에 달아 본 뒤 움직인다. 돌아가는 길과 곧은 길의 계획을 먼저 아는 쪽이 이긴다. 이것이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의 법이다.

『군정(軍政)』[3]에 이르기를, "말로 해서는 서로 들리지 않으므로 징과 북을 만들고, 눈으로 보아서는 서로 보이지 않으므로 깃발을 만든다"라고 했다. 징과 북[4], 깃발은 병사들의 귀와 눈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병사들이 하나로 모이면 용감한 자도 혼자 나아갈 수 없고 겁 많은 자도 혼자 물러날 수 없다. 이것이 많은 무리를 부리는 법이다. 그래서 밤에 싸울 때는 징과 북을 많이 쓰고 낮에 싸울 때는 깃발을 많이 쓰니, 사람의 귀와 눈을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다.

삼군에게서는 사기(氣)를 빼앗을 수 있고, 장군에게서는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느슨해지며, 저물녘에는 사기가 돌아갈 생각뿐이다. 그래서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적의 사기가 날카로울 때를 피하고, 느슨해지고 돌아갈 생각뿐일 때 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일이다. 다스려진 채로 어지러운 적을 기다리고, 고요한 채로 떠들썩한 적을 기다린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가까운 곳에서 먼 길을 온 적을 기다리고, 편안한 몸으로 지친 적을 기다리고, 배부른 몸으로 굶주린 적을 기다린다. 이것이 힘을 다스리는 일이다. 가지런한 깃발을 맞받아치지 말고, 당당하게 펼친 진을 치지 말라. 이것이 변화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부리는 법은 이렇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적을 올려다보며 치지 말고, 언덕을 등진 적을 맞받아치지 말고, 거짓으로 달아나는 적을 뒤쫓지 말고, 날랜 군사를 치지 말고, 미끼로 내민 군사를 물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대를 가로막지 말고, 에워싼 적에게는 반드시 빠져나갈 틈을 남겨 두고, 궁지에 몰린 적을 다그치지 말라. 이것이 군사를 부리는 법이다.

---

1. 수레에 실어 군대를 따라가게 하는 무기와 식량, 장비 같은 군수품.

2. 삼군의 장수들은 군대를 이루는 세 군을 저마다 이끄는 장수를 말한다. 열에 하나만 이른다는 것은 병사 열 가운데 하나만 다투는 곳에 닿는다는 뜻이다.

3. 지금은 전하지 않는 옛 병서.

4. 징은 물러나라는 신호, 북은 나아가라는 신호다.

제8편 구변(九變)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법은,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을 받아 군대를 모으고 병력을 끌어모은 뒤 거친 땅(圮地)[1]에서는 머물지 않고, 네거리 땅(衢地)에서는 이웃과 손잡고, 끊어진 땅(絕地)에서는 오래 있지 않고, 갇힌 땅(圍地)에서는 꾀를 내고, 죽을 땅(死地)에서는 싸운다. 길 가운데는 지나가지 않는 길이 있고, 군대 가운데는 치지 않는 군대가 있고, 성 가운데는 치지 않는 성이 있고, 땅 가운데는 다투지 않는 땅이 있고, 임금의 명령 가운데도 받지 않는 명령이 있다.

아홉 가지 변화(九變)[2]의 이로움에 통달한 장수는 군사를 부릴 줄 안다. 아홉 가지 변화의 이로움에 통달하지 못한 장수는 땅의 생김새를 알아도 땅의 이로움을 얻지 못한다. 군대를 다스리면서 아홉 가지 변화의 방법을 모르면, 다섯 가지 이로움을 알아도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헤아릴 때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섞어 본다. 이로운 데서 해로움을 함께 헤아리면 하려는 일을 믿고 밀고 나갈 수 있고, 해로운 데서 이로움을 함께 헤아리면 근심을 풀 수 있다. 그러므로 제후를 굴복시킬 때는 해로움으로 하고, 제후를 부릴 때는 일거리로 하고, 제후를 달려오게 할 때는 이로움으로 한다.

군사를 부리는 법은 이렇다.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우리에게 적을 기다릴 채비가 있음을 믿으라. 적이 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우리에게 적이 칠 수 없는 데가 있음을 믿으라.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험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살기만 바라면 사로잡힐 수 있고, 성급하게 화를 내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깨끗함을 지나치게 따지면 욕을 당할 수 있고, 백성을 지나치게 아끼면 번거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허물이며 군사를 부리는 데 닥치는 재앙이다. 군대가 뒤집히고 장수가 죽는 것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험 때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

1. 산과 숲, 험하고 막힌 곳, 늪과 못처럼 다니기 힘든 땅. 저본은 泛地로 적었으나 통행본을 따라 圮地로 읽었다.

2. 원문의 목록이 아홉과 딱 맞지 않아, 무엇을 아홉으로 세는지 옛날부터 설이 갈린다.

제9편 행군(行軍)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대를 머물게 하고 적을 살필 때는 이렇게 한다. 산을 넘을 때는 골짜기를 끼고 가고, 볕 드는 쪽을 향해 높은 데 자리 잡고, 높은 곳에 있는 적과는 올라가며 싸우지 말라. 이것이 산에서 진 치는 법이다. 물을 건넜으면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진다. 적이 물을 건너오면 물 안에서 맞받아치지 말라. 절반쯤 건너게 한 뒤에 치는 것이 이롭다. 싸우고자 하면 물가에 바싹 붙어서 적을 맞지 말고, 볕 드는 쪽을 향해 높은 데 자리 잡고, 물살을 거슬러 맞서지 말라. 이것이 물가에서 진 치는 법이다.

소금기 있는 늪(斥澤)을 지날 때는 오로지 서둘러 떠나고 머물지 말라. 소금기 있는 늪 한가운데서 적과 맞붙게 되면 반드시 물풀을 끼고 숲을 등진다. 이것이 소금기 있는 늪에서 진 치는 법이다. 평지에서는 평탄한 곳에 자리 잡되 오른쪽과 등 뒤에 높은 곳을 두고, 앞은 죽을 자리로 뒤는 살 자리로 삼는다. 이것이 평지에서 진 치는 법이다. 이 네 가지 진 치는 법의 이로움으로 황제(黃帝)가 네 임금을 이겼다[1].

무릇 군대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하며, 볕 드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그늘진 곳을 하찮게 여긴다. 물과 풀이 넉넉한 곳에서 기르고 단단한 땅에 머물러 군대에 온갖 병이 없으면, 이것을 반드시 이긴다고 한다. 언덕이나 둑에서는 반드시 볕 드는 쪽에 자리 잡고 그것을 오른쪽 뒤에 등진다. 이것이 군대의 이로움이며 땅이 주는

도움이다. 위에 비가 와 물살이 내려오면, 물을 건너려는 자는 물살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땅에 깎아지른 골짜기(絕澗), 하늘 우물(天井), 하늘 감옥(天牢), 하늘 그물(天羅), 하늘 함정(天陷), 하늘 틈(天隙)이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 떠나고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는 그곳을 멀리하고 적은 그곳에 다가가게 하며, 우리는 그곳을 앞에 두고 적은 그곳을 등지게 한다. 군대 곁에 험하고 막힌 곳, 웅덩이, 갈대숲, 작은 숲, 우거진 덤불이 있으면 반드시 꼼꼼히 거듭 뒤져야 한다. 복병과 간사한 자가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 조용하면 험한 지형을 믿는 것이다. 멀리 있으면서 싸움을 걸면 우리가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평탄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이롭기 때문이다.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면 적이 오는 것이고, 풀숲 여기저기에 가림막을 많이 쳐 두었으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다. 새가 날아오르면 복병이 있다는 것이고, 짐승이 놀라 달아나면 적이 덮쳐 오는 것이다. 먼지가 높고 뾰족하게 일면 전차가 오는 것이고, 낮고 넓게 일면 보병이 오는 것이며, 흩어져 가닥가닥 뻗으면 땔나무를 하는 것이고, 조금씩 일며 오가면 진을 치는 것이다.

말은 낮추면서 대비를 더하면 나아오려는 것이고, 말을 세게 하며 앞으로 내달리면 물러나려는 것이다. 가벼운 전차가 먼저 나와 양옆에 자리 잡으면 진을 펼치는 것이고, 약속도 없이 화친을 청하면 계책이 있는 것이다. 바삐 달리며 병사를 늘어세우면 때를 기약해 둔 것이고, 반쯤 나아오고 반쯤 물러나면 꾀어내려는 것이다. 무기를 짚고 서 있으면 굶주린 것이고, 물을 길으러 가서 저부터 마시면 목마른 것이다.

이로움을 보고도 나아오지 않으면 지친 것이고, 새가 모여 있으면 진영이 비었다는 것이며, 밤에 소리치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군대가

어수선하면 장수에게 무게가 없는 것이다. 깃발이 흔들리면 어지러운 것이고, 군관이 성을 내면 지친 것이다. 말을 잡아 고기를 먹으면 군량이 떨어진 것이고, 물 항아리를 걸어 두고 막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궁지에 몰린 적이다[2]. 소곤소곤 머뭇거리며 느릿느릿 병사들에게 말을 붙이면 무리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자주 상을 주면 궁색한 것이고, 자주 벌을 주면 곤경에 빠진 것이다. 처음에는 사납게 굴다가 나중에 제 무리를 두려워하면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신을 보내 공손히 사과하면 쉬고 싶은 것이다.

적이 성난 채 맞서 와서 오래도록 맞붙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면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군대는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함부로 밀고 나가지만 않고 힘을 모으고 적의 사정을 헤아려 적을 잡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 깊이 헤아리지 않고 적을 얕보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

병사들이 아직 따르지 않는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부리기 어렵다. 병사들이 이미 따르는데도 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릴 수 없다. 그러므로 어질게 대해 하나로 모으고 엄하게 다스려 가지런히 한다. 이것을 반드시 얻는다고 한다. 평소에 명령이 잘 시행되는 가운데 병사들을 가르치면 병사들이 복종하고, 평소에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병사들을 가르치면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평소에 명령이 잘 시행되는 것은 장수와 무리가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이다.

---

1. 황제(黃帝)는 중국의 전설 속 임금이다. 네 임금은 사방의 임금들로, 황제가 이들을 쳐서 이겼다고 전한다.

2. 물 긷고 밥 짓는 그릇을 거두어 매달아 두었다는 말이다. 통행본은 甀 대신 같은 뜻의 瓶를 썼다.

제10편 지형(地形)

손자가 말했다. 땅의 생김새에는 트인 땅(通)이 있고, 걸리는 땅(掛)이 있고, 버티는 땅(支)이 있고, 좁은 땅(隘)이 있고, 험한 땅(險)이 있고, 먼 땅(遠)이 있다. 우리도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곳을 트인 땅이라 한다. 트인 땅에서는 먼저 높고 볕 드는 곳에 자리 잡고 군량 길을 잘 터 두고서 싸우면 이롭다.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오기 어려운 곳을 걸리는 땅이라 한다. 걸리는 땅에서는 적이 대비하지 않았으면 나가서 이기지만, 적이 대비하고 있으면 나가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어려우니 이롭지 않다. 우리가 나가도 이롭지 않고 적이 나와도 이롭지 않은 곳을 버티는 땅이라 한다. 버티는 땅에서는 적이 우리에게 이익을 내보여도 나가지 말라.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서 적이 절반쯤 나오게 한 뒤에 치는 것이 이롭다.

좁은 땅에서는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으면 반드시 어귀를 병력으로 가득 채우고 적을 기다린다. 적이 먼저 자리 잡았을 때는, 적이 어귀를 가득 채웠으면 뒤쫓지 말고 채우지 않았으면 뒤쫓으라. 험한 땅에서는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으면 반드시 높고 볕 드는 곳에 머물러 적을 기다린다. 적이 먼저 자리 잡았으면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고 뒤쫓지 말라. 먼 땅에서는 세가 엇비슷하면 싸움을 걸기 어렵고, 싸우면 이롭지 않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땅을 다루는 길이며 장수가 맡은 가장 무거운 일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군대에는 달아남(走)이 있고, 느슨해짐(弛)[1]이 있고, 빠짐(陷)이 있고, 무너짐(崩)이 있고, 어지러움(亂)이 있고, 패해 달아남(北)이 있다. 이 여섯 가지는 하늘과 땅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허물이다. 세가 엇비슷한데 하나로 열을 치게 하는 것을 달아남이라 한다. 병사는 강한데 군관이 약한 것을 느슨해짐이라 한다. 군관은 강한데 병사가 약한 것을 빠짐이라 한다. 높은 군관이 성을 내며 따르지 않고 적을 만나면 원망을 품고 제멋대로 싸우는데, 장수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너짐이라 한다. 장수가 약하고 엄하지 않으며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군관과 병사에게 일정한 법도가 없고 군사를 늘어세운 것이 이리저리 흐트러진 것을 어지러움이라 한다. 장수가 적을 헤아리지 못해 적은 수로 많은 적과 맞붙고 약한 군대로 강한 적을 치며, 군대에 가려 뽑은 선봉이 없는 것을 패해 달아남이라 한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지는 길이며 장수가 맡은 가장 무거운 일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땅의 생김새는 군대를 돕는 것이다. 적을 헤아려 이길 길을 잡고, 험하고 좁고 멀고 가까움을 셈하는 것이 뛰어난 장수가 갈 길이다.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이것을 모르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진다. 그러므로 싸움의 판세로 보아 반드시 이길 수 있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 해도 싸워도 되고, 싸움의 판세로 보아 이길 수 없으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 해도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도 이름을 구하지 않고 물러나도 죄를 피하지 않으며, 오로지 백성을 지키고 군주를 이롭게 하는 장수는 나라의 보배다. 병사를 갓난아이처럼 돌보므로 함께 깊은 골짜기에라도 뛰어들 수 있고,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처럼 돌보므로 함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후하게 대하기만 하고 부리지 못하고, 아끼기만 하고 명령하지 못하며, 어지러운데도 다스리지 못하면, 버릇없는 자식과 같아서 쓸 수가 없다.

우리 병사가 칠 수 있는 줄은 알아도 적을 칠 수 없는 줄을 모르면 승리는 반쪽이다. 적을 칠 수 있는 줄은 알아도 우리 병사가 칠 수 없는 줄을 모르면 승리는 반쪽이다. 적을 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병사가 칠 수 있는 줄도 알지만, 땅의 생김새로 보아 싸울 수 없는 줄을 모르면 승리는 반쪽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사람은 움직여도 헤매지 않고, 일을 벌여도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가 위태롭지 않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가 온전해진다.

---

1. 저본은 馳(달림)로 적었으나, 병사가 강하고 군관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므로 통행본을 따라 弛(느슨해짐)로 읽었다.

제11편 구지(九地)

손자가 말했다. 군사를 부리는 법에는 흩어지는 땅(散地)이 있고, 얕은 땅(輕地)이 있고, 다투는 땅(爭地)이 있고, 오가는 땅(交地)이 있고, 네거리 땅(衢地)이 있고, 깊은 땅(重地)이 있고, 거친 땅(圮地)이 있고, 갇힌 땅(圍地)이 있고, 죽을 땅(死地)이 있다.

제후가 제 땅에서 싸우는 곳을 흩어지는 땅이라 한다. 남의 땅에 들어갔으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얕은 땅이라 한다. 우리가 얻어도 이롭고 적이 얻어도 이로운 곳을 다투는 땅이라 한다. 우리도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곳을 오가는 땅이라 한다. 세 나라 제후의 땅이 맞닿아 있어 먼저 이르는 쪽이 천하의 무리를 얻는 곳을 네거리 땅이라 한다. 남의 땅에 깊이 들어가 등 뒤에 적의 성읍을 많이 두게 된 곳을 깊은 땅이라 한다. 산과 숲, 험하고 막힌 곳, 늪과 못처럼 다니기 힘든 길을 거친 땅이라 한다. 들어가는 길은 좁고 돌아 나오는 길은 멀어서 적이 적은 병력으로도 우리의 많은 병력을 칠 수 있는 곳을 갇힌 땅이라 한다. 빨리 싸우면 살아남고 빨리 싸우지 않으면 망하는 곳을 죽을 땅이라 한다.

이 때문에 흩어지는 땅에서는 싸우지 않고, 얕은 땅에서는 머물지 않고, 다투는 땅에서는 치지 않고, 오가는 땅에서는 대열이 끊기지 않게 하고, 네거리 땅에서는 이웃과 손잡고, 깊은 땅에서는 노략하고, 거친 땅에서는 지나가고, 갇힌 땅에서는 꾀를 내고, 죽을 땅에서는 싸운다.

옛날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적의 앞과 뒤가 서로 닿지 못하게 하고, 큰 부대와 작은 부대가 서로 기대지 못하게 하고,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서로 구하지 못하게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거두지 못하게 하고, 병사가 흩어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군대가 모여도 가지런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움에 맞으면 움직이고, 이로움에 맞지 않으면 멈춘다.

"감히 묻는다. 적이 많은 병력을 가지런히 갖추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맞서는가?" 답은 이렇다. 먼저 적이 아끼는 것을 빼앗으면 적은 이쪽 뜻을 따른다. 전쟁의 실정은 빠름이 으뜸이다. 적이 미처 손쓰지 못한 틈을 타고, 생각지 못한 길로 가서, 경계하지 않는 곳을 친다.

무릇 남의 땅에 쳐들어간 군대가 지킬 길은 이렇다. 깊이 들어가면 병사들이 한마음이 되니 주인이 이기지 못한다. 기름진 들판에서 노략하면 삼군이 먹을 것이 넉넉하다. 병사들을 잘 돌보아 지치게 하지 말고, 사기를 하나로 모으고 힘을 쌓으며, 군사를 움직이고 계책을 짜되 적이 헤아릴 수 없게 하라.

갈 곳 없는 데 던져 넣으면 죽을지언정 달아나지 않는다. 죽기를 무릅쓰는데 무엇을 얻지 못하겠는가? 병사들이 힘을 다한다. 병사가 깊이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으면 굳게 버티고, 깊이 들어가면 한데 묶이고, 어쩔 수 없게 되면 싸운다.

그러므로 그런 군대는 다잡지 않아도 스스로 경계하고, 바라지 않아도 뜻한 바를 얻고,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친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믿는다. 점치는 일을 금하고 의심을 없애면 죽을 때까지 딴 데로 가지 않는다. 우리 병사에게 남는 재물이 없는 것은 재물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남는 목숨이 없는 것은 오래 살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싸우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날, 앉아 있는 병사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누워 있는 병사는 눈물이 턱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데 던져 넣으면 전제(專諸)와 조귀(曹劌)[1]처럼 용감해진다.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은 솔연(率然)[2]과 같다. 솔연은 상산에 사는 뱀이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든다. "감히 묻는다. 군대를 솔연처럼 부릴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만,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바람을 만나면 서로 돕기를 왼손과 오른손처럼 한다. 이 때문에 말을 나란히 매어 두고 수레바퀴를 땅에 묻어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용기를 하나로 가지런히 하는 것은 다스림의 길이고, 굳센 자와 여린 자가 모두 제자리를 얻는 것은 땅의 이치다. 그러므로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이 손을 맞잡게 하듯 군대를 한 사람처럼 부리는 것은, 병사들이 어쩔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군의 일은 고요하여 속을 알 수 없고, 바르게 다스린다.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일을 바꾸고 계책을 고쳐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머무는 곳을 바꾸고 길을 돌아가서 병사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 장수가 병사들과 기약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오르게 한 뒤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제후의 땅에 깊이 들어가서는 쇠뇌의 방아쇠를 당기듯 한다. 양 떼를 몰듯 몰고 가고 몰고 오되,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삼군의 무리를 모아 험한 곳에 던져 넣는 것, 이것을 장군의 일이라 한다.

아홉 가지 땅의 변화와 굽히고 펴는 힘과 사람 마음의 이치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남의 땅에 쳐들어간 군대가 지킬 길은, 깊이 들어가면 한마음이 되고 얕게 들어가면 흩어진다는 것이다.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어 군대를 부리는 곳은 끊어진 땅(絕地)이고, 사방으로 통하는 곳은 네거리 땅이며, 깊이 들어간 곳은 깊은 땅이고, 얕게 들어간 곳은 얕은

땅이며, 뒤는 굳게 막히고 앞은 좁은 곳은 갇힌 땅이고, 갈 곳이 없는 곳은 죽을 땅이다.

이 때문에 나는 흩어지는 땅에서는 병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얕은 땅에서는 부대가 서로 이어지게 하고, 다투는 땅에서는 뒤따르는 부대를 재촉하고, 오가는 땅에서는 지키기를 삼가고, 네거리 땅에서는 이웃과 맺은 사이를 굳게 하고[3], 깊은 땅에서는 먹을 것을 잇대고, 거친 땅에서는 길을 서둘러 나아가고, 갇힌 땅에서는 빠져나갈 틈을 막고, 죽을 땅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보인다. 병사들의 마음은 에워싸이면 막아 서고, 어쩔 수 없으면 싸우고, 위태로움이 지나치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이 때문에 제후들의 속셈을 모르면 미리 손잡을 수 없고, 산과 숲, 험하고 막힌 곳, 늪과 못의 생김새를 모르면 군대를 나아가게 할 수 없고,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땅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 이 넷이나 다섯 가운데 하나라도 모르면 패왕의 군대[4]가 아니다. 패왕의 군대가 큰 나라를 치면 그 나라는 무리를 모으지 못하고, 위엄이 적에게 미치면 적은 동맹을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하의 동맹을 다투지 않고 천하의 권세를 기르지 않아도, 제 뜻을 펴서 위엄을 적에게 미치니 적의 성을 빼앗을 수 있고 적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법에 없는 상을 베풀고, 법령에 없는 명령을 내건다. 삼군의 무리를 부리기를 한 사람 부리듯 한다. 일을 시키되 말로 알리지 말고, 해로운 일을 시키되 이로움을 알리지 말라. 망할 땅에 던져 넣은 뒤에야 살아남고,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산다. 무리는 해로운 데 빠진 뒤에야 이기고 짐을 가를 수 있다.

전쟁을 하는 일은 적의 뜻을 따르며 자세히 살피다가,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적을 향해 천 리 밖에서 적장을 죽이는 데 있다. 이것을 솜씨 좋게 일을 이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로 정한 날에는 관문을 막고 통행 부절을 꺾어 적의 사신이 오가지 못하게 하고, 묘당 위에서 엄하게 다그쳐 그 일을 결정한다. 적이 문을 열고 닫으며 틈을 보이면 반드시 서둘러 들어간다. 적이 아끼는 것을 먼저 노리되 은밀히 때를 기약하고, 먹줄을 밟듯 법도를 지키며 적의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싸움을 결판낸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처녀처럼 하니 적이 문을 열고, 나중에는 달아나는 토끼처럼 하니 적이 미처 막지 못한다.

---

1. 전제(專諸)는 오나라 공자 광(뒤의 왕 합려)을 위해 왕 요를 찔러 죽인 자객이고, 조귀(曹劌)는 노나라 장수로 회맹 자리에서 제나라 환공을 칼로 위협해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고 전한다. 저본은 두 이름을 한 글자씩 줄여 적었다.

2. 전설 속의 뱀으로, 이름은 「재빠르다」는 뜻이다. 상산(常山)은 중국 북쪽의 이름난 산인 항산(恒山)을 달리 부르던 이름이다.

3. 저본은 이 자리에 오가는 땅(交地)을 한 번 더 적고, 통행본에 없는 「네거리 땅에서는 믿는 바를 삼간다」는 구절을 이어 두었다. 둘째 交地는 衢地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고 통행본대로 옮겼다.

4. 제후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霸)와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王)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제12편 화공(火攻)

손자가 말했다. 무릇 불로 치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불사르는 것(火人), 둘째는 쌓아 둔 양식을 불사르는 것(火積), 셋째는 치중을 불사르는 것(火輜), 넷째는 창고를 불사르는 것(火庫), 다섯째는 대오를 불사르는 것(火隊)[1]이다. 불을 놓는 데는 반드시 바탕이 있어야 하고, 그 바탕은 반드시 미리 갖추어 둔다. 불을 놓는 데는 때가 있고, 불을 일으키는 데는 날이 있다. 때란 날씨가 메마른 때다. 날이란 달이 기·벽·익·진의 네 별자리[2]에 드는 날이다. 달이 이 네 별자리에 드는 날에 바람이 인다.

무릇 불로 칠 때는 반드시 다섯 가지 불의 변화에 따라 응한다. 불이 적진 안에서 일어나면 일찍 밖에서 호응한다. 불이 일어났는데도 적병이 조용하면 기다리되 치지 말고, 불길이 다 타오르기를 지켜보다가 따라 칠 만하면 따라 치고, 따라 칠 만하지 않으면 멈추라. 불을 밖에서 놓을 수 있으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맞추어 놓으라. 불이 바람 위쪽에서 일어나면 바람 아래쪽에서 치지 말라. 낮바람은 오래가고 밤바람은 그친다. 군대는 반드시 다섯 가지 불의 변화를 알고, 날수를 헤아려 때를 지킨다.

불로 공격을 돕는 것은 슬기롭고, 물로 공격을 돕는 것은 힘이 세다. 물로는 적을 끊어 놓을 수는 있어도 적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싸워 이기고 쳐서 빼앗고도 그 공을 닦지 않으면 흉하니, 이것을 비류(費留)[3]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깊이 헤아리고, 훌륭한 장수는 이것을 닦는다. 이롭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얻을 것이 없으면 군사를 쓰지 않고, 위태롭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성난 마음 때문에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로움에 맞으면 움직이고, 이로움에 맞지 않으면 멈춘다.

노여움은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성난 마음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일으킬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삼가고, 훌륭한 장수는 이것을 경계한다. 이것이 나라를 편안히 하고 군대를 온전히 하는 길이다.

---

1. 隊를 隧(길)로 읽어 「보급로를 불사른다」고 보는 설도 있다.

2. 하늘을 스물여덟 자리로 나눈 이십팔수 가운데 넷이다. 달이 이 별자리에 들면 바람이 인다고 보았다.

3. 「헛되이 쓰며 머문다」는 뜻이다. 저본은 이 대목과 바로 뒤의 「닦는다」를 惰(게으르다)로 적었으나, 그렇게 읽으면 뜻이 뒤집히므로 통행본을 따라 修(닦다)로 읽었다.

제13편 용간(用間)

손자가 말했다. 무릇 십만 군대를 일으켜 천 리 밖으로 싸우러 나가면, 백성이 쓰는 비용과 나라에서 대는 물자로 하루에 천금이 든다. 나라 안팎이 들끓고 사람들이 길에서 지쳐 쓰러지며, 생업을 잡지 못하는 집이 칠십만 집[1]이다. 서로 버티기를 몇 해 하다가 하루 사이에 승패를 다투는데, 벼슬과 녹봉과 백금을 아끼느라 적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더없이 어질지 못하다. 그런 자는 백성을 이끌 장수가 아니고, 군주를 도울 신하가 아니며, 승리를 이끌 주인이 아니다.

현명한 임금과 어진 장수가 움직였다 하면 적을 이기고 뭇사람보다 뛰어난 공을 이루는 것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먼저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얻을 수 없고, 비슷한 일에 빗대어 얻을 수 없으며, 별의 도수로 따져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으니, 적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다.

간첩을 쓰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다. 향간(鄕間)[2]이 있고, 내간(內間)이 있고, 반간(反間)이 있고, 사간(死間)이 있고, 생간(生間)이 있다. 다섯 간첩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도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신묘한 벼리라 하며 임금의 보배다. 향간은 적국의 고향 사람을 쓰는 것이다. 내간은 적의 관리를 쓰는 것이다. 반간은 적의 간첩을 거꾸로 쓰는 것이다. 사간은 밖에서 거짓 일을 꾸며 우리 간첩이 그것을 듣고 알게 한 뒤 적의 간첩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생간은 살아 돌아와 알리는 것이다.

삼군의 일 가운데 간첩보다 가까운 것이 없고, 상은 간첩에게 주는 것보다 후한 것이 없으며, 일은 간첩의 일보다 은밀한 것이 없다. 성스럽고 슬기롭지 않으면 간첩을 쓸 수 없고,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으며,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이 가져온 것에서 참을 얻을 수 없다. 미묘하고 미묘하구나!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간첩의 일이 아직 벌어지기도 전에 먼저 새어 나와 들리면, 그 간첩과 그가 일러 준 사람을 함께 죽인다.

무릇 치고자 하는 군대, 빼앗고자 하는 성,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곳을 지키는 장수와 곁에서 모시는 자, 손님을 맞아 알리는 자, 문지기, 가신의 성과 이름을 알아야 하니, 우리 간첩을 시켜 반드시 찾아내어 알게 한다.

적의 간첩이 우리를 엿보러 오면 그를 이익으로 꾀고 이끌어 머물게 한다. 그러면 반간으로 얻어 쓸 수 있다. 이것으로 적의 사정을 알게 되니 향간과 내간을 얻어 부릴 수 있다. 이것으로 알게 되니 사간이 거짓 일을 꾸며 적에게 알리게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알게 되니 생간을 기약한 때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다섯 간첩의 일은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길은 반드시 반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반간은 후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은(殷)나라가 일어설 때 이지(伊摯)[3]가 하(夏)나라에 있었고, 주(周)나라가 일어설 때 여아(呂牙)[4]가 은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과 어진 장수가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을 간첩으로 쓸 수 있으면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것이 전쟁에서 가장 요긴한 일이며, 삼군이 이것에 기대어 움직인다.

---

1. 옛 제도에서는 여덟 집이 한 단위를 이루어, 한 집이 싸움에 나가면 이웃 일곱 집이 그 뒷바라지를 했다. 십만 군대를 내면 칠십만 집이 생업을 놓게 되는 셈이다.

2. 저본은 다섯 간첩을 처음 꼽는 이 자리에서 因間으로 적었으나, 바로 뒤의 풀이와 뒤 대목에서는 鄕間이라 쓰므로 향간으로 읽었다. 판본에 따라 두 글자가 엇갈린다.

3. 은나라를 세운 탕왕의 재상 이윤(伊尹)을 가리킨다. 하나라는 은나라에 앞선 왕조로, 이윤은 하나라에 머물며 그 사정을 잘 알았다고 전한다.

4.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스승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흔히 강태공이라 부른다. 은나라는 주나라에 앞선 왕조로, 여상은 은나라에서 지내다가 주나라로 갔다고 전한다.

판권면

손자병법

원제 · 孫子兵法 (손자병법)

지은이 · 손무 (孫武,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 기원전 5세기 무렵, 춘추 시대 말. 지금 전하는 열세 편의 꼴은 3세기 초 조조(曹操)가 주를 단 뒤로 굳었다.

저본 · 지금 널리 통행하는 한문 열세 편 본문의 전자 텍스트.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라이오넬 자일스(Lionel Giles)의 영어 번역 《Sun Tzŭ on the Art of War》(London: Luzac, 1910. 손성연 교감본을 옮긴 것)는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한자 6,048자(부호 제외) · 13편 · 88문단(저본에서 한 문단으로 묶인 제7~13편을 내용 단위로 나눔) · 옮긴이 주 40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가 간체자를 번체자로 되돌리며 생긴 오자와 오식. 통행본에 따라 바로잡았고, 뜻을 크게 바꾸는 자리는 각주에 밝혔다.

저작권 · 원저작물은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루어진 글이다. 대한민국(저작권법, 저작자 사후 70년)과 미국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난 퍼블릭 도메인이다. 저본 본문은 고대 원문 그대로라 새 저작권이 생기지 않으며, 대조에 쓴 자일스의 영어 번역(1910)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이 한국어 번역은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7